

포도(거봉, 샤인머스켓) 수출농가 컨설팅 만족도 조사

이철휘*, 서정학*, 홍기흥*, 김관후*, 윤홍기*, 장현동*, 박평식*

*충청남도농업기술원

e-mail:Lch5127@korea.kr

The Analysis of Grape('Shine Muscat', 'Geobong') farmer's consulting satisfaction

Cheol-Hwi Lee*, Jeong-Hak Seo*, Ki-Heung Hong*, Gwan-Hou Kim*, Hong-Ki Yoon*, Hyun-Dong Jang*, Pyeong-Sik Park*,

*Chungcheo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요약

충남농업기술원은 포도 수출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집단 및 소규모 컨설팅을 8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컨설팅을 받은 농가가 컨설팅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농가는 천안지역 포도 수출농가 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답변방법은 리커트 척도 5점(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기술컨설팅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수출 재배기술이 향상되었다」가 4.4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수출에 대한 이행도가 향상 되었다.」와 「기술컨설팅에 만족한다.」 같이 4.35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반면에 「생산비가 절감되었다.」는 3.6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 수출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출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수출 포도에 관한 세부적 기술적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이 결과 우선 긍정적 항목에 대한 설문항목을 보면 「수출을 위한 현재 품종에 만족한다.」가 4.0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부정적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수출규격품 생산이 어렵다」가 4.05로 제일 높았다. 다음으로 「수출규격에 맞는 품질(크기, 모양, 당도) 유지가 어렵다.」가 3.95로 나왔다. 이 설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수출 품종에는 만족하지만 수확후 저장을 통한 고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수에 비하여 선별 및 포장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만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수출포도에 관한 경영적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답변형태를 리커트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였다. 농가들이 공감도가 높은 항목을 보면 「수출관련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가 4.25, 「수출 확대를 위한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가 4.2, 「수출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가 4.15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수출농가들이 아직 수출규격품 생산에 대한 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불안해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컨설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수가 낮은 항목을 보면 「수출업체 바이어 회포가 있다」가 2.6, 「검역 등 클레임 예방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가 2.95, 수출대상국의 정보를 모른다.가 3.0 순이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농가들은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전에 관행적으로 행해진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포도 수출농가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 위 연구결과는 농촌진흥청 출연금과제(PJ0131082020)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